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들의 지위는 다른 나라 여성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 지위 세계 하위권

유엔개발계획 '권한척도' 90위 '평등지수' 37위 발표

남녀차별 현실 반영...정부·여성개발원서 원인분석

김미경 기자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95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가 각각 90위와 37위로 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세계화에 걸맞은 새로운 여성지위 향상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무장관(제2)실과 한국여성개발원은 23일 유엔개발계획의 '여성권한척도'와 '남녀평등지수'의 산출방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가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에 대한 원인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여성권한척도'와 '남녀평등지수'는 지난 89년부터 해마다 '인간개발지수'(HDI)를 발표해오고 있는 유엔개발계획이 오는 9월초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겨냥해 올해 처음으로 개발해 낸 것으로 세계 각국의 여성지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수가 되고 있다.

'여성권한척도'는 각국 여성들이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수로 매긴 것이며, '남녀평등지수'는 '인간개발지수' 산출시 고려하는 교육·건강 등이 얼마나 남녀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지수다.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가 1백16개국 중 90위를 차지할만큼 낮은 것은 의회에서의 여성참여율이 1%, 경영·관리직 여성의 비율이 4.1%, 수입에서 여성의 몫이 22%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개발지수에서는 10위를 차지했지만 '여성권한척도'에서는 1위를 기록한 스웨덴의 '의회 여성참여율'(33.5%) '경영·관리직 여성비율'(38.9%) '수입에서 여성의 몫'(41.6%) 등과 크게 비교된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경제수준이 비교도 안될만큼 낮은 짐바브웨(43위) 방글라데시(80위) 짐바아(86위)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된다.

'남녀평등지수'에서 그나마 37위를 차

지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 여성의 문자해독률이 95.8%, 국민학교·중학교 진학률이 75%로 높게 나타나는 등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성관련지수가 인간개발지수에 비해 이처럼 훨씬 뒤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남녀차별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어 공공분야에서의 쿼터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노미혜 부원장은 "정책활동과 정책결정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만큼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우리나라 여성이 몇 명이나 참여하느냐보다는 다른 나라의 견주어 한참이나 뒤처지는 여성지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세계화를 위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여성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